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서 얼마나 피해를 주는가?

1. 간접흡연이란?

간접흡연이란 수동흡연이라고도 하는데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가족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거나 부부중에 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거나 직장에서 옆의 동료가 담배를 피울 때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을 하게된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간접흡연만으로도 비흡연자에 비해 각종 질환의 발생 및 사망위험도 그리고 생명의 단축 등 모든 담배로 인한 해를 받는다. 특히 어린이와 태아인 경우 그 피해는 더욱 크다.

남편이 하루에 한갑씩 담배를 피우고 부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 그 부인은 남편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다른 부인보다 예를들어 폐암발생 위험도는 1.3배이며, 하루에 두갑씩 피우는 경우 2.1배, 심장병 발생 위험도는 1.5배나 된다.

이것이 혐연권(嫌煙權)을 주장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

2. 주류연(主流煙)과 부류연(副流煙)이란?

이것은 간접흡연과 관계되는 것으로 주류연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연기를 흡입했다가 다시 내뿜을 때 나오는 연기를 말하고 부류연은 불이 붙고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연기를 말한다.

그런데 주류연과 부류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류연보다 부류연이 훨씬 해롭기 때문이다. 주류연은 담배연기가 일단 흡입과정에서 담배속을 지나서 필터를 거치고 그리고 사람의 폐에 들어가서 나쁜 화학물을 다 내려놓고 나는 연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덜 해로운데 반하여 부류연은 생담배가 그대로 타는 연기이기 때문에 담배가 갖고있는 모든 해로운 물질들이 그대로 들어있어 대단히 해롭다. 실제로 부류연이 날라올 때 눈이 따갑고, 고통도 심하고 또 기침도 더 많이 나오는 것을 경험한다.

예를들어 부류연에는 니코틴이 3배가 더 많고, 타르는 3.5배가 더 많으며, 일산화탄소는 5배가 더 많고, 암모니아는 20배나 더 많다.

담배를 피우는 본인보다 간접흡연자가 더 독한 연기를 들며 마시게 됨으로 혐연권을 주장할 수 있는 또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3. 부모의 흡연이 어린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가족내에서 부모 또는 부모중의 한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 함께 사는 어린이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 어린이는 아직 모든 세포와 조직이 성숙되지 않아 어른보다 더욱 해를 많이 받는다. 특히 어린이가 어릴수록 피해는 커진다.

첫째, 어린이의 상기도 염(감기, 기침, 기관지염 및 폐염)의 감염율이 약 2배 높아진다. 부모가 다 흡연하는 경우는 부모중 한 사람이 흡연하는 경우보다 그 감염율은 더 높아진다.

둘째,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70%나 더 높아진다.

셋째, 어려서 담배연기에 의하여 호흡기가 상한 어린이는,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호흡기 감염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진다.

네째, 어린이 천식과 부모의 흡연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어린이가 다른 이유로 천식에 걸렸을 때도 부모가



담배를 끊으면 천식이 많이 완화된단.

다섯째, 어린이의 중이염 발생을 촉진시킨다.

여섯째, 어린이의 신장발육과 지능발전에 지장을 준다.

일곱째, 부모가 흡연하면 어린이가 성장한 후 흡연자가 될 확률이 95%나 된다. 즉, 부모의 흡연은 아이가 성인이 된 후의 질병과 조기사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4. 임신부의 흡연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임신한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면 담배의 독성물질이 태반을 통하여 태아의 건강에 다음과 같은 나쁜 영향을 미친다.

첫째, 저산소증으로 태아의 발육이 지연되어 약 200gm정도 체중이 낮은 아기가 태어난다. 태아의 체중이 2,500 gm보다 낮으면 조산아 라고 하는데 조산아는 사망율이 대단히 높다. 담배피우는 어머니가 조산아를 낳을 확률이 2배나 높다.